

한국불교미술 원류 간다라 유적 조사

한국미술사 연구소장

문명대 교수

한국 불교 미술의 원류로 주목받아온 간다라 불교유적에 대한 학술조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장 문명대(동국대·사진) 교수는 최근 "지난 2월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간다라 지역 유물 및 유적 조사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며 "우선 1차로 8월 20일부터 파키스탄 박물관에 소장된 간다라 불상에 대한 현지 학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다라 불상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스와트 박물관과 탁실라 박물관, 라호르 박물관, 페샤와르 박물관이 조사 대상이다. 올해 스와트 박물관과 탁실라 박물관에 소장된 불상들을 조사하고 내년 8월엔 나머지 박물관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지역

빠르면 내년말부터 발굴

문 교수는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 말부터 간다라 불교유적 발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굴 가능성이 높은 곳은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 지역이다. 서기 1-4세기 유적으로 그 동안 200여 개의 불상이 발견됐고, 높이 40m에 이르는 대탑이 유명하다. 그 동안 극히 일부만 발굴됐을 뿐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가장 안 된 곳 중 하나다. 특히 간다라 지역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북부 쪽이다 보니 우리 나라 불상과 유사한 불상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문 교수는 "스와트 지역은 경주 석굴암 조형의 뿌리로 보여지는 붓카라 제3사원지, 남산 칠불암 불상에 영향을 준 자하나바드 마에불 등이 있어 우리 나라 불교 미술의 원류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며 "불상 양식이 어떻게 우리 나라로 전해져 왔는지를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고 말했다.

현재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발굴에는 일본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은 2000년에도 간다라 불상 50여 점을 발굴한 바 있다.

日 비조사 금당 백제양식

조원창 씨 '백제연구'서 '고구려식' 통설 뒤집어

일본 최초의 절인 비조사(596년 창건, 법흥사라고도 함) 금당은 고구려 양식일까, 백제 양식일까?

비조사 금당=고구려 양식'이라는 학계의 통설을 뒤집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조원창(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책임연구원) 씨는 최근 <백제연구> 33집에 기고한 논문 '백제 이흥기단 축조술의 일본 비조사 전파'에서 "금당 조성에 쓰인 축조술인 '이흥기단'의 외형에만 초점을 맞춰 그 기

단의 이흥기단 역시 '고구려 식'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흥기단 축조술은 백제나 신라에도 전파됐고, 특히 백제는 고구려식을 발전시킨 나름의 축조술을 갖게 됐는데, 비조사 금당의 이흥기단에 쓰인 축조술은 바로 백제 양식이라는 것이 조 씨 주장의 요지다.

조 씨의 이러한 주장은 비조사 동쪽 금당의 상층기단과 하층기단의 한가운데에 또 다른 석렬이 한 줄 지나간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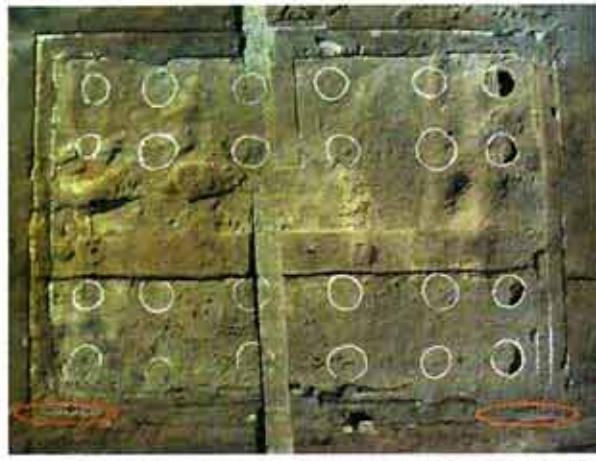
이흥기단 축조술 백제 전파·발전 법흥사·산전사 등 많은 절에 영향

원을 고구려의 금강사터와 연결시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며 "비조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 건축가(僧工, 조사공들이 조성했으며 금당 역시 고구려 형식이 아닌 백제 형식"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건물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주변보다 높이 다지는 기단을 2층으로 쌓는 방식인 이흥기단은 삼국 중 5세기 말 고구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이 때문에 비조사 동쪽 금

당의 이흥기단은 고구려 정릉사터와 금강사터, 백제의 창림사터와 부여 능산리 절터, 신라의 황룡사터 최종가람(584년 장유존상을 안치하기 위해 중건된 사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하층기단과 상층기단 사이에서 석렬이 확인된 곳은 비조사의 동쪽 금당터와 부여 능산리 절터의 금당터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씨는 "부여 능산리 절터 금당터의 하층기단과 상층기단 사이에서



○부여 능산리 절터 금당터(터전형으로 표시된 부분) 이상·하층 기단 사이의 석렬.

도 길이 10cm 내외의 잔돌들이 열 줄로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능산리 절터의 조사공(僧工)이 비조사 동쪽 금당의 축조에 참여했거나 그 축조기술이 전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따르면, 비조사 동쪽 금당의 이흥기단이 고구려 식이 아니라 백제 식이라는 것은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조사가

건립될 시점부터 동·서 금당이 완료될 때까지 고구려의 조사공이 일본에 파견되었거나 파견 요청을 받은 기록은 국내·외 어느 사서에서도 살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백제 조사공의 파견은 <일본서기> 등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백제 조사공들이 일본에 파견된 후 비조사가 창건되고 이흥기단

축조술에 의해 동·서 금당이 조성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 씨는 말했다.

조 씨는 "이흥기단은 고구려에서 백제로 전파되었고 이를 발전시킨 백제의 조사공들에 의해 일본에 전파됨으로써 비조사뿐 아니라 이후 법흥사나 산전사, 판전사, 고려사, 대방사의 금당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학술 담당=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故 김지견 박사 추도 논집

올 7월 日서 발간

본에서는 회암학 전공인 기무라 기요타카 도쿄대 명예교수가 추도문을 기고할 예정이며, 도쿄 고마자와 대학 이사이 고오세이 교수, 주우오 대학 고지마 다이산 교수 등이 논문을 실는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의 저명한 불교학자인 헨릭 소렌센 교수 등이 참여하는 등 모두 10여 명의

학자들이 논문을 기고할 예정이다. 논집은 일어판으로 나온다.

이연숙 회장(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박사과정)은 "고 김지견 박사는 한국유학불교학연구회의 전신인 신라불교연구회의 창립 회원 중 한 분이다"며 "일본에 한국 불교의 특색을 널리 알리는 데도 앞장 선 김

지견 박사의 학문적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도 논집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유학불교학연구회에는 현재 석 박사 과정, 단기 유학생 등 15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1985년 첫 호가 나온 이래 한국어 판과 일어판을 번갈아 가며 논집을 펴내고 있으며, 재작년 나온 한국어판 특집호(8호인 <일본의 한국불교연구동향> (장경각은 국내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돼 그 해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학외 소식

불교학연구 10차 학술발표회
불교학연구회는 10차 학술발표회를 9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전자계산소 교육공학1실에서 연다. 서울대 규장각 박해당 연구원과 고려대 장경연연구소 김재성 선임연구원이 발표한다. 02-2260-3128

한국선학회 18차 학술발표회
한국선학회는 올 해 첫 월례 발표회를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김태완(부산대 강사) 씨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전달 구조'를, 이택진(고려대 강사) 씨가 '경허의 선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02-2260-3135

보조사상연구 44차 학술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3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하택신회의 선사상'을 주제로 44차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유진 스님이 '하택신회의 선사상'을, 김진우(남경대 박사) 씨가 '신회의 선사상이 조사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기제)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02-733-5315

'원효학 연구' 6집 발간
원효학연구원은 <원효학 연구> 6집을 최근 발간했다. '원효 성사의 대승 불교의 입심사상'을 특집으로 꾸몄다. 지난 해 가을 열렸던 학술대회 발표문·논평문과 함께 '원효 성사의 사상 또는 각 종교, 철학의 입심사상'을 주제로 한 공모 논문 6편을 실었다. 054-742-9922

高僧 다시보기

지엄 스님과 한국불교 선종

지엄(智嚴, 1464-1534)스님은 그의 제자 부용영권(芙蓉靈巖, 1485-1571)스님, 경성암선(慶聖-禪, 1488-1568)스님과 더불어 조선 중기불교계를 이끌었던 삼화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세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스님은 천라북도 부안 태생으로 아버지 송복생과 어머니 왕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호를 야로(野老, 野翁), 당호를 벽송당(壁松堂)이라 했다. 어려서 글공부는 물론 칼쓰기를 좋아해 성종 22년(1491) 북방에 침입한 여진족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뒤 대장부로 태어나 마음자리(心地)를 지키지 않고 헛된 명예를 좇아 밖으로만 치달았는가'며 세상의 속잡음을 느끼고는 계룡산 조경(趙景)스님에게 출가했다. 그후 연희(衍熙)스님에게 교학을 배운 뒤 벽계정심(溍正心)스님에게 선법을 배웠다. 중종 3년(1508) 금강산 묘길상암에서 선법에 정진한 후 용문산 오대산 등지를 유력하고 중종 29년(1523)에 지리산 수곡암에서 <법화경>을 강의하다가 나이 71세, 법랍 44세로 입적했다.

스님의 깨달음의 과정이나 처음 선법을 익혔던 방법은 고려종기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선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 또한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 혜능 스님의 17대 적손인 대혜종고(大慧宗杲, 1080-1163)스님과 일제선사의 제18대 적손인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스님의 법을 수용했다. 사실 조선 선

여진족 격퇴후 계룡산 출가 역불속 대승교의 종풍 다져

거의 법흥은 지엄 스님이 지눌 스님의 선법을 계승하면서도 대혜 스님과 고봉 스님의 선종, 입제종풍을 선양하였고 스님의 법손인 청허당 휴정스님을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스님이 초학자들을 지도하였던 <선원집>과 <법집(법행록)>이나 지례의 병을 제거하고 활로를 열어주었던 <선요>와 <대혜서정> 등의 불전은 지금까지 사찰 강원에서 사집과(四集)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한국불교를 통불교 혹은 종합불교라 하는데, 한국불교사에 있어 선학을 숭상하고 교학을 선양하는 종풍은 조선시대의 송유역불의 법안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신라말 선종으로부터 고려종기의 보조국사 지눌 스님 그리고 고려말 태고 보우스님과 나옹 해근스님, 조선 중기 지엄 스님과 두 제자를 포함한 삼화상을 거쳐 서산대사 휴정스님에게서 확립된 것이다. 그래서 휴정 스님은 지엄 스님과 두 제자 영관 스님, 일선 스님을 삼화상이라는 의미의 '삼로(三老)'라 불렀고, 이들 스님의 행적을 적으면서 스님을 조부(祖父)라 하고 그 문도들을 각 기엄부(嚴父), 숙부(叔父)라 하여 숭상하였다.

결국 스님은 조선중기 송유역불시책이 가속화되는 상황 하에서도 조선불교의 종풍을 위해 조사선종과 대승교의를 숭상하는 종풍을 다져서, 이를 제자 영관 스님과 일선 스님에게 전수하였고 스님의 법손인 청허당 휴정 스님에게 계승되어 한국불교의 독특한 전통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불교텔레비전이 새로워집니다.

감동 그리고 큰세상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위성음악 방송

종합영상포매체로 발전하는 불교TV가 2002년 3월4일부터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www.btn.co.kr

www.btni.co.kr

• 불교TV시청방법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시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불교TV방송프로그램 판매 [안내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헌정회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강호천기밀빌)

대표전화 : (02)3270-3300 팩스 : (02)3270-3498